- 이 책은 과학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.
- 과학적 도구들을 활용함으로써 장단점을 열거하고 이에 기반하여 직관적 결론에 도달하는 '전통적 보고서 작성법' 의 문제점을 극복하여, 보고서가 '합리적 의사결정/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실용적 도구' 가 되도록 합니다.
- 또한 과정과 결론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.

보고서 작성, 이런 것이다:
상위 1%를 위한 보고서 작성법
[고품질 보고서 작성법]

주변에 보고서 작성에 관한 책과 글들이 많이 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책과 글들이 '보고자의 의도를 어떻게 잘 정리하고, 표현하고, 자료로 뒷받침하고, 전달할 것인가'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

"이왕이면 다홍치마", "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."는 말처럼, '보고자의 의도를 잘 정리하고, 표현하고, 자료로 뒷받침하고, 전달하는 보고서'가 좋은 보고서임에는 틀림없다. 그러나 다홍치마 이전에 치마로써의 기능을 잘하고, 보기 좋은 떡 이전에 떡이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. 보고서도 보기 좋은, 멋진 보고서 이전에 보고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.

'보고서의 역할'은 무엇인가? 모든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종 의사결정자의 올바른 판단/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. 올바른 의사결정의 핵심은 '동일한 효과를 최소의 자원으로 달성'('Principle of Parsimony'라고 함)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. 이를 위해서는 '상황이 명확하게 구조화되고, 결론 도출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, 결과가 타당해야'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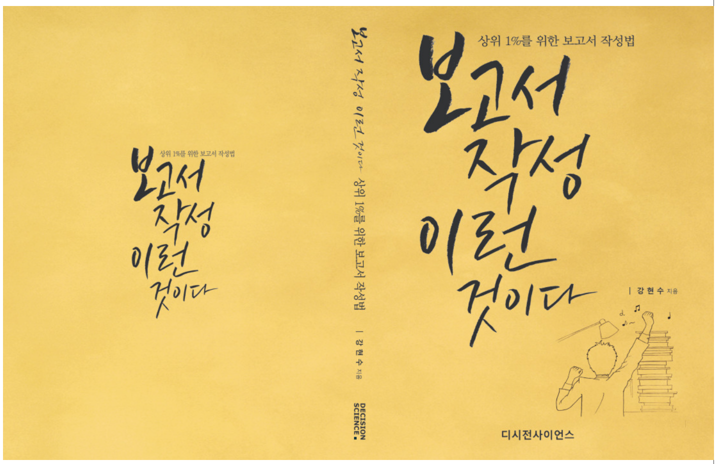
이 책은 대안들을 찾고 대안들 중 선택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중요도를 하나씩 측정하여 숫자로 나타냄으로써 과정과 결론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과학적 방법과 도구들을 제시한다.

농부가 농기계를 활용하고 건설기사가 건설중장비를 활용하듯이 보고서 작성자는 의사결정(정책결정)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. 뿐만 아니라 IT 시대에 맞는 선진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. 보고서 작성 시 전통적으로 '장단점 열거'와 같은 '정성적 방법'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'점수화'와 같은 '정량적 방법'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. 즉 '장단점 열거법(Pro-Con List)' → '장단점 비교법(Prudential Algebra)' → '점수화법(Weighted Scoring)' → '점수화 및 검증법(AHP)'으로 발전되어왔다. 특히 'AHP(Analytic Hierarchy Process, 분석적 계층화 과정)'는 다양한 방면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.

AHP는 판단기준과 대안들의 경중을 쉽고 빠르고 정밀하게 찾아냄으로써 최적의 결정/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'저울'과 같은 역할을 한다. 이를 통해 합리적 평가, 판단, 이해조정, 선택 등 정책결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보고서 작성에 획을 긋다 •

"우리 시대에 가장 낙후된 부문 중 하나가 '보고서 작성' 이다. 21C에 살고 있으면서도 보고서 작성 수준은 20C에 머물러 있다. IT 시대에 맞는 보고서 작성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여야 한다."



차례 •

제 1 부 좋은 보고서의 조건
I. 나쁜 보고서의 특징
II. 좋은 보고서의 조건

제 2 부 과학적 보고서 작성법
I. 과학적 방법의 조건과 발전
II. 장단점 비교법(prudential algebra)의 활용
III. 점수화법(weighted scoring)의 활용
IV. 점수화 및 검증법(AHP)의 활용

제 3 부 고품질 보고서 작성법
I. 사전 준비 및 점검
II. 보고서 작성
III. 요약 보고서 작성

부록 AHP 자세히 알기
I. AHP의 특징과 장점
II. 문제의 구조화 및 priority 도출